

타이틀 미정.

로그라인 :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현재의 아파트를 내놓았던 민혜가 아파트에서 일어난 독거노인 사고를 방관하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독거노인이 된다.

아파트는 긴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두개. 현재 하나는 공사 중.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반대 쪽 까지 감.

할머니는 왜 거기까지 가서 굴러 떨어져야 했는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은 개인의 잘못이나 거기까지 가서 떨어져야만 하는 사회적 결함이 있던 것 아닐까.

집단이기주의 모자갈등 독거노인이슈

작위적이라 수정할 사항 -> 장갑, 계단의 피

여성 60대 배우 -> 필름 메이커스 사용

문제 : 아파트 촬영

### S#1 민혜의 아파트 앞 부동산 해가 화창한 낮

민혜(여,56)가 부동산에서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간다. 민혜는 아파트를 내놓고, 준성과 함께 살 생각에 행복해 보인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민혜는 준성의 전화를 받는다. 차소리에 민혜가 여러차례 준성에게 되묻는다.

민혜 뭐라고? 준성아 잘 안들려

민혜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 즈음 민혜는 준성의 목소리를 듣는다. 준성은 짜증난 목소리로 말한다.

V.O 준성 엄마 이제 좀 들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민혜 으응~ 부동산. 아파트 내놓고 왔지.

준성 아... 그래?

민혜 엄마가 다음주에 서울로 집 보러 다녀올게. 예진이한테 말해 놔.

준성 나 할말 있는데 엄마.

준성과 통화를 하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던 중 부녀회 친구 효숙엄마를 만난다. 민혜를 작은 목소리로 효숙엄마한테 말한다. 그 탓에 준성의 목소리가 묻힌다.

민혜 (작게) 이따 부녀회에서 봐.

민혜 아 준성아! 엄마가 예진이랑 너 반찬 주려고 하는데 너...

준성 어 그래, 그래. 엄마 미안, 나 예진이가 부른다.

민혜 준성아? 준성아?

민혜는 서운해하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다. 터벅터벅 힘차게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민혜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타이틀 (미정)

### S#2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 D

민혜가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다. 엘리베이터 안엔 효숙엄마가 있다. 민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극성 맞은 효숙 엄마는 민혜가 들고 있는 큰 가방에 관심을 보인다.

효숙 엄마 준성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디 가?

민혜 (멋쩍게) 아니 뭐... 서울...

효숙 엄마 준성이네랑 살 집 보러 가는 거야?

민혜 그르치 뭐.

효숙 엄마 (한숨을 내쉬며) 준성이 애가 참 착해. 우리 애는 같이 좀 살자니까 와이프때문에 안된다고, 아주 그냥 야단을. 지 애미가 똥으로 보이냐.

민혜는 약간 우쭐해진다. 착한 아들을 둔 자신이 효숙엄마보다 나은 것 같다. 효숙 엄마와 민혜는 함께 웃는다. 그때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더니, 독거노인 영심이 탄다. 민혜는 영심에게 인사를 건넨다. 영심을 유심히 보다가 말을 거는 효숙 엄마.

효숙 엄마 저기, 할머니. 이거 못 봤나? 이거?

효숙 엄마가 엘리베이터에 붙은 '저층세대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전보를 가르킨다. 환경문제, 배려와 같은 말들이 써져있다. 부녀회에서 써 붙인 것이다.

효숙 엄마 (다채로운 표정과 함께 친절하 말투로) 환경 생각도 해야되고, 5층에서는 계단으로 내려 오실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엄마, 저, 원래 옆 엘리베이터 쓰는 거면서... 내일 부터는 엘리베이터 안 서요 이거는 주민 투표로 결정된거라 이제부터는 계단 이용하셔야돼

독거노인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구,

효숙엄마 다음에는 계단 이용하세요?

독거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하고 효숙 엄마는 만족했다는 듯 말을 끝마친다. 민혜는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있다가 효숙 엄마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아파트 정문으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한다. 민혜는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면서 착한 사람 역을 가져가려한다.

민혜 그렇게 까지는 안해두 되는데...

효숙엄마 아냐, 모두 평등해야지. 같이 사는 건데.

민혜 그래도...

### #3 서울의 아파트, 낮

민혜가 집을 둘러본다. 남자 중개원이 안경을 올리며 말한다.

중개원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 #4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저녁

독거노인이 자신의 집 앞 엘리베이터를 눌러보지만 눌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옆의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 #5 서울의 아파트, 낮

중개원 아들부부랑 사시는 거면 여기가 딱이죠

민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 #6 아파트 계단

독거노인이 아픈 무릎을 만지며 한숨을 내쉰다.

## #7 서울의 부동산

중개인 서류는 이게 다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 #8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저녁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눌러지 않는다. 영심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간다.

## #9 서울 부동산

민혜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외제음으로 쿠당탕, 영심의 추락 소리가 들린다.

## #10 아파트 1층. N

민혜가 서울에 다녀와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민혜. 그때 살짝 열린 계단 문 사이로 이상한 형체가 보여 다가간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민혜. 바닥에 쓰러져있는 영심을 보고 놀란다. 영심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민혜는 부녀회의 사람들을 부른다. 전화를 받고 달려와 노인 주위 서있는 부녀자 5명. 민혜가 서류를 든 가방을 짊, 쥐며 말한다.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민혜 어떡해...

부녀자 1 경찰 불러야 되나?

부녀자 2 경찰을 꼭 불러야 하나... 구급차만 부르면...

영심 구급차, 구급차 불러 줘요.

효숙 엄마 그... 어... 일단 집으로 올라가요. 어딜 부딪쳤어? 머리?

영심은 효숙 엄마와 다른 부녀회 사람들의 부축과 함께 집으로 올라간다. 효숙 엄마는 이런 저런 말을 영심에게 붙인다. 부녀회들은 영심이 계단에서 구른 것은 영심 개인의 잘못이지만, 꽤 거리가 있는 이 엘리베이터 옆 계단까지 영심이 찾아와 구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의 중심이 자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부녀회는 영심을 안정 시키려 노력한다.

## #11 영심의 집 안

영심을 집안까지 데리고 들어온다. 민혜는 방관한다. 효숙 엄마는 영심에게 물을 떠다준다.

영심 나... 이게..., (인상을 찡그리며) 구급차 불렀어?

부녀회가 일동 조용해 진다. 그때 민혜가 핸드폰을 들며.

민혜 지금 부를게요!

민혜는 영심의 집 앞으로 나와 119에 전화한다. 얼마 가지 않아 아파트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민혜는 구급차를 바라본다. 구급차에서 들것을 가지고 내린 남자들이 민혜에게 전화한다. 벨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영심의 흐느낌이 반복되며 민혜를 공포스럽게 한다.

구급 대원 1 이거 어디로 올라가야 하나요? 엘리베이터 두 대 다 5층은 안 눌러서요.  
민혜 아, 그. 그. 옆에 계단 있어요.

구급 대원이 영심의 집으로 들어와 영심을 데리고 나가지만 엘리베이터 탓에 시간이 지체된 탓일까, 영심은 결국 사망한다.

### #12 부녀회실 낮

독거노인 영심의 사망은 큰 기사 거리가 아니었다. 절차상 찾아온 두명의 경찰은 어려보인다. 그 어린 경찰들은 민혜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한다. 민혜는 경찰의 눈을 피한다.

경찰 1 최...민혜 씨. 본인 맞으시죠? 노인 분 그 어쩌다 돌아가신 거라고요?  
민혜 (작은 목소리로) 그게요.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혜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간다. 그때 효숙 엄마가 나선다.

효숙 엄마 아휴, 그게. 넘어지셨어요. 계단 올라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신건지 원지. 저 계단에 테이프 붙여 놓은 건 언제 떼요? 청소 해도 되나?

경찰 1 네, 이제 청소 하셔도 됩니다.

경찰 1은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민혜를 보며 질문한다.

경찰 1 아... 노인분 가족이랑 아는 사이세요?  
효숙 엄마 아뇨. 그 노인분 아들 하나 있는데 자주 안 보러와. 우리가 요양병원도 아니고,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지.

부녀자 1이 청소 아줌마에게 전화를 건다.

경찰 2 아 저 그, 최민혜 씨가 발견하신 거니까 민혜 씨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참.  
부녀자 1 아, 아줌마! 그 계단 이제 청소해도 된대. 청소 해줘요.  
효숙 엄마 하여튼 고마워요~

왁자지껄 듯대기 시장 같은 부녀회실. 부녀자 1이 통화하는 소리와 효숙 엄마 말소리, 다른 부녀자들이 말하고 웃는 소리가 시끄럽다. 민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연히 행동하는 부녀회가 괴물같이 느껴진다.

### #13 부녀회 앞 낮

부녀자들과 민혜가 부녀회실 앞으로 나와 경찰을 배웅한다. 그때 준성에게서 전화가 온다.

준성 어 엄마. 왜이렇게 전화가 안돼.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민혜 지금?

준성 오늘 가기로 했잖아. 영심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있고, 엄마 짐 얼마나 되나 보기도 봐야되고.

민혜 집 안 치워놨는데. 미안해, 요즘 엄마가 깜빡 깜빡 하구 그런다.

준성 한 10분? 정도 걸려.

민혜가 집으로 걸어들어간다.

민혜 알았어. 조심히 와.

#### #14 아파트 주차장

민혜가 준성의 차에서 짐을 끌어내린다. 각종 과일이 실려있다.

준성 엄마 내가 할게. 허리도 안 좋으면서 뭘. 아 이거,

준성이 사과 박스를 든다.

준성 예진이가 엄마가 사과 좋아한다는 말 듣고 산거야.

민혜 아이구, 고맙다고 전해 줘.

민혜의 표정은 웃고있지만 낮빛은 어둡다. 준성은 짐을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민혜의 얼굴을 바라본다. 민혜가 준성의 뒤를 따라간다.

준성 엄마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민혜 아냐, 뭘.

#### #15 엘리베이터 안

모자 사이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준성이 입을 떼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본다. 뭉까지 돌려 한참을 읽는 준성. 그런 준성에 모습에 민혜는 다른 곳만 바라본다.

준성 이게 뭐야 엄마?

모르는 척을 하는 민혜.

민혜 뭐가?

준성 아니 이거.

준성이 손가락으로 공고문을 펴, 튕긴다.

준성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쓰다는 게 뭔소리야. 엄마 이런 것도 해?

준성이 고개를 돌려 민혜를 바라본다. 민혜의 눈이 커지고는 손사레까지 친다.

민혜 내가 하긴 뭘 해. 주민투표로 한 거야.

준성 이걸 너무 한다.

준성의 혀를 차며 말하자 민혜는 입을 꼭 다문다. 땡 소리를 내며 10층에 서는 엘리베이터.  
민혜와 준성은 말 없이 내린다.

#### #16 민혜의 집

짐을 다 풀고 사과를 깎기 시작하는 민혜. 민혜는 서먹한 분위기를 풀러 서울의 집 이야기를 꺼낸다.

민혜 서울에 집 사진 보낸 거 봤어?

준성 응.

민혜 어때? 예진이는 뭐래? 괜찮대? 거기가 좀 된 아파트이긴 한데, 위치도 좋고, 방 세개라  
너네 방, 아기 방, 내 방 하면 딱 좋을 거 같은데.

신나서 말하는 민혜와 다르게 준성은 머리만 굽적인다. 코를 한번 매만지더니 입을 여는  
준성.

준성 그래서 말인데 엄마.

준성은 뭔가 할말이 있어보였으나 민혜는 그런 준성의 입에 사과를 넣어준다. 사과를  
으적으적 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준성.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꺼낸다.

민혜 어디 가?

준성 예진이한테 전화 좀 하러. 금방 다녀올게.

민혜 너 담배 피울라고 그러지 또!

준성이 민혜의 집 밖으로 나간다.

#### #17 아파트 공동 계단 앞

터벅터벅 아파트 복도를 걷어가는 준성의 발자국 소리. 예진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준성 어... 아니. 아 이야기 할 거라니까 그러네. 진짜 오늘은 꼭 이야기 할 거라고. ... 알았어.  
엄마도 이해해 주겠지 뭐. 아니야 나 담배 안 피워.

준성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담배를 한까치 문다. 엘리베이터 옆 공동 계단을  
밀려하는데 공고문이 붙어있다. 공고문에는 영심의 사고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글이 써져있다. 준성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고 뒤를 바라본다. 준성은 영심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 영심이 이 계단까지 걸어와 떨어져 죽었다는 게 이상하다. 그때 준성은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던 공고문을 기억한다.

V.O 예진 여보세요? 오빠? 오빠?

준성 어, 어. 예진아 내가 이따가 전화 할게.

전화를 끊은 준성은 집으로 돌아간다.

#### #18 민혜의 집

민혜와 준성이 싸운다.

민혜의 회피성 말들에 준성은 엄마도 늙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수치스러움 분노 터짐. 준성에게 나가라. 준성 엄마가 나가라 한거다.

경찰은 상황조사를 하러 온 거임 부녀회에다가는 말을 못함. 큰 사건이 아니라서 젊은  
사람들이 옴.

조사 다 끝난 거니까 청소해도 되냐 물어봄

효숙 엄마가 우리가 요양병원도 아니고

청소아줌마한테 전화 중

민혜는 그들을 보면서 안 좋아함.

결정은 부녀회에서 한 거임.

준성이 근데 왜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졌는데?

왜 5층에서 안서냐. 주민투표했다.

엄마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

아들이 그건 부녀회가 떠다민 거나 마찬가지로

민혜 그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같이 살라고 하는 건데

아들 엄마 안 부끄러워? 우리 엄마도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나가